# 尹 파면…불교계 "이제 화합하자"

**헌재, 4월 4일 탄핵소추안 인용결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국가 손실"**
**불교계 '국민화합' 당부 메시지 발표**
**진우 스님 "단합된 지혜로 대화합 길"**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파면 선고와 함께 불교계는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갈 때"라고 입을 모으며 '국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헌법 질서에 따른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대화합의 길로 나아갑시다' 제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에 대해 "법과 제도에 따른 최종적 판단으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4월 4일 열린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안국역 인근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모습.

는 분명한 증거"라며 엄중한 결정 앞에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의 권력도, 특정 이념도 아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오늘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깊은 성찰과 단합된 지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천태종은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안정과 화합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가 조속히 국가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 스님은 "이제 깊은 성찰을 통해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갈등과 대립의 벽을 넘어 대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성명서에서 "깊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종교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치유와 통합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태고종은 이번 탄핵을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길에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입장문에서 국민 화합을 호소하며 밝은 눈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것도 당부했다. 법명 스님은 "이제 둘로 분열되었던 국민은 하나로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시민단체들도 국가 혼란 치유와 변화된 사회를 염원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범불교시국회의는 입장문에서 "파면 선고는 파국적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신뢰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국론 분열과 국가적 혼란 상태를 치유하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주의의 가치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국민을 혼란으로 몰고 간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참회를 촉구하며 "수많은 실정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승가회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의 발길은 멈추지 않고 이제 시작임을 밝히며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계사 막던 '동양금박' 철거…성역화 불사 탄력

**4월 8일 가림막 설치…5월 말 경 철거**
**담화 스님 "미래 도량으로 거듭 날 것"**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 일주문을 가로막고 있던 동양금방 빌딩이 5월 말 철거된다. 수년간 지속돼온 인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결과로, 일주문의 3분의 1가량을 가로막던 빌딩이 철거되면 조계사 일대 성역화 불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사는 4월 8일 동양금박 빌딩 전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부처님오신날 이후 5월 말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주문을 가로막고 있던 동양금박 빌딩 철거는 조계사의 오랜 숙업사업이었다. 2014년



조계사는 5월 말 동양금박 빌딩 철거에 앞서 가림막을 설치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조계사는 성역화 불사 완수를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동양금박 매입에 나섰고, 사부대중의 모연으로 2021년 12월 30일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입자와의 점포 인도 문제를 두고 법정 분쟁이 일면서 3여년 간 철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 조계사에 따르면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동양금박을 점유하고 있던 세입자가 4월 6일 자진 퇴거하면서 철거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 이후 철거하기에 앞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인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가 담긴 가림막을 설치하고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일주문 앞이 트이게 됨으로써, 조계사가 국민의 갈등과 고뇌를 치유하는 명상도량이자 미래가 있는 종단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보광 스님

**원로회의, 4월 9일 제78차 회의서 선출**
**보광 스님 "종단 안정 · 발전 기여" 다짐**
**4월 22일 고운사 화재 위로방문 결의**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전 호계원장 보광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4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8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정했다.

앞서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신임 원로의원으로 보광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한바 있다. 원로의원 임기는 10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보광 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종도들의 도움으로 호계원장을 무사히 잘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그 공덕으로 이번 의원으로 추천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원로의원은 종단에서 최고 의결기구"라며 "종법을 잘 살피고 원로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이 안정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하겠다. 불교 전통을 기반으로 더욱 젊어지는 한국불교가 될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음사(종하 스님) 사실관계 보고 △산불 재난에 따른 성보 피해 현황 및 지원 계획 보고 등이 있었으며 논의로 '원로회의 의원 선출의 건'을 다뤘다. 기타사항에서는 △고운사 산불 피해사찰 성금 모금 및 현장 방문 △대종사 법계 자격 관련 논의 △멸빈자 사면 종헌 개정안 관련 보고 등이 다뤄졌다.

회의에 앞서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먼저 유례없는 산불로 인한 많은 희생에 대해 언급하며 기금 모연과 현장 방문 등에 대해 회의에서 의견 나눌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는 4월 22일 의성 고운사를 위로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회의 참석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원로스님들의 화쟁과 화엄의 정신을 본받아 종단은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종단 미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지남 삼아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재적인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으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8일 올해 장학승으로 선발된 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 조계종단 장학승 40명…진우 스님 "지원 확대" 약속

**4월 8일,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국외 1 · 국내 25 · 승가대 14명 등**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불기 2569(2025)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승으로 선발된 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선발된 장학승은 국외 1명, 국내 25명, 사찰 승가대학원 14명 총 40명이다. 앞서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정묵 스님)는 종단이 정한 전공 분야, 수학 계획서, 자기소개서, 성적, 종단 기여 가능성, 추천서 등 총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주는 정식 장학금 수여자로서, 앞으로 종단의 디딤돌 역할이자 앞날을 책임질 스님들"이라고 치하하며 "더욱 더 학업에 충실해 종단 발전과 포교에 큰 기둥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에서는 전 학인들에게 전애 장학금을 줘야하지만, 종단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누구나 종단의 지원을 받아 공부하고 수행정진 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계종의 종단 장학승 선발사업은 현대사회 변화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규 선발된 4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08명의 장학승이 배출됐다. **임은호 기자**


